영화 '머니백', 익숙함을 꼬아 만든 신선함

범죄 오락 영화의 익숙한 도식들 한 데 모여

빠른 전개 · 웃픈 현실 대한 풍자 색다른 재미

'머니백'은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한 가난한 소시민, 사채업자, 형사, 비리 정치인에 킬러 등 범죄 오락 영화의 익숙한 도식들이 한 데 모여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속도감 있는 전개와 '웃픈' 현실에 대한 풍자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12일 개봉하는 '머니백'(감독 허준형·제작 젠픽쳐스)는 이긴 놈이 다 갖는 세상, 하나의 돈가방을 차지하기 위해 일곱 명이 뺏고 달리고 쫓기는 추격전을 그린 블랙코미디극이다. 배우 김무열 박희순 이경영 전광렬 오정세 임원희 김민교 등 충무로를 대표하는 주조연급 배우들이 한 데 모인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머니백'의 오프닝 시퀀스는 취업준비생 민재(김무열)가 양아치(김민재)에게 5만원권 지폐를 뺏기고, 이후 이 돈을 거쳐가는 일곱 캐릭터의 순환 관계를 속도감 있게 담아내며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한눈에 집작케 한다.

이처럼 돌고 도는 일곱 캐릭터는 서로 갑-을 관계를 형성하며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사채빚에 허덕이는데 아픈 어머니 수술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취업준비생 민재, 민재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양아치, 양아치를 부리는 사채업자 백 사장(임원희), 백 사장의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총까지 저당 잡힌 최 형사(박희순), 백 사장에게서 불법 선거 자금을 갈취하는 문 의원(전광렬), 백 사장의 사주를 받아 문 의원을 살해하려는 킬러 박(이경영), 킬러 박에게 총을 배달하다 사건에 휘말리게 된 택배기사(오정세)는 각각의 사연으로 사건에 휘말리며 쫓고 쫓기는 레이스를 시작한다. 여기에 최 형사의 총이 끼어들어 갑-을 관계가 반전되기도 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들이 얽히게 되는 계기는 우연에 가깝다. 민재는 킬러 박의 옆 집에 살아서 우연히 총을 대신 받게 되고, 그 총을 들고 돈을 뺏기 위해 간 곳은 바로 총을 보낸 백 사장의 사업장이다. 택배기사는 양아치를 따라 간 민재의 집에서 돈가방을 발견하고 도망가지만, 이를 든 채 한강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한강에서 불법 거래를 하던 최 형사는 물에 빠진 택배기사를 발견하고 돈가방을 손에 넣게 된다. 이 같은 사건의 전개는 모두 우연성에서 비롯돼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으나, 빠른 리듬감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관객들을 고스란히 따라가게 만든다.

또한 '머니백'은 캐릭터의 대사나 행동보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며 웃음을 유발하는데, 웃음의 타율 역시 높다. 이 중 캐릭터 자체가 웃음을 자아내는 건 킬러 박과 백 사장뿐, 나머지는 시종일관 진지한 톤을 유지한다. 오히려 캐릭터들이 품고 있는 삶의 애환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상황들은 탄식과 동시에 웃음이 흘러나온다.

배우들의 연기 변신도 신선하다. "역대 필모그래피 중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이경영은 카리스마를 내려놓고 허당기 넘치는 킬러 박으로 호연을 펼쳐 웃음을 선사한다. 오정세는 고된 택배 기사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며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한다. 전작 '기억의 밤' 속 강렬한 이미지를 벗은 김무열과 웃음기를 쫙 뺀 김민교의 연기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돈 뒤에 숨겨진 갑질의 악순환이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그려져 다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 여기에 택배기사에게 간장게장을 퍼붓는 진상 고객 등 지극히 현실적인 갑질의 단면은 웃음 이상의 진한 쓴맛을 남긴다.

그렇지만 '머니백'은 치열한 두뇌싸움이나 화려한 액션이 담긴 기존의 범죄 오락물과는 결이 다르다. 각 캐릭터의 '웃픈' 사연과 사건에 사건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상황들로 묘한 웃음을 주는 '머니백'이다.

"도전 아닌 선물"…'정글의 법칙', 남극으로 간 이유

남극은 극한 중의 극한이다.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곳. 그래서 '정글의 법칙'이 갔다. 족장 김병만은 "도전이 아닌 선물"이라고 했다.

12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정글의 법칙 in 남극'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김진호 PD와 족장 김병만 그리고 전혜빈과 김영광이 참석했다. 김병만은 "큰 도전이 아니라 큰 선물을 받고 온 것 같다.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남극 프로젝트는 가장 험난한 생존기가 예상되는 장소인데다 스태프를 포함해 단 10명으로 꾸려져야 했기에 출연자 섭외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했다. 족장 김병만을 제외하고 갈 수 있는 출연자는 단 2명이었고 전혜빈과 김영광이 남극행 비행기를 탔다.

김진호 PD는 "남극이라는 장소 자체가 도전하는 공간이고, 리스크가 커서 생존력이 강한 분들을 원했다. 또 김병만 씨와 호흡을 잘 맞췄던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현장에서 똘똘 뭉쳐서 안전하게 잘 촬영하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혜빈은 '정글의 법칙W'를 비롯해 마다가스카르, 보르네오, 통가 편에서 활약한 자타공인 '정글 여신'이고 김영광은 뉴칼레도니아 편에 등장해 뛰어난 생존력을 자랑했다.

전혜빈은 "10명만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떠올랐다는 게 큰 영광이었다. 사람의 자취가 별로 없는 남극을 간다는 게 기뻤다"고, 김영광은 "300회 특집이기도 하고 남극이 제 스스로의 힘으로 못가는 장소라 생각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정글의 법칙'은 2011년 방송 시작 후 올해 1월 300회를 맞기까지 지난 7년간 전 세계의 오지와 정글을 누비며 생존기를 선보였다. 300회 특집을 맞아 국내 예능 최초로 지구상의 가장 극지인 남극에서 생존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김병만과 전혜빈이 각각 4kg, 2kg을 찌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남극 생본기는 역시 만만치 않았다.

전혜빈은 "안대를 벗고 시원한 곳에 얼굴을 대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얼굴이 눌린 채로 입이 돌아갔다. 입이 안움직여서 무서웠다. 마사지하고 풀고 뜨거운 물을 대고 있으니 얼굴이 돌아왔다"고 에피소드를 전했다.

김진호 PD는 "극점에 갔을 때 집에 가고싶다기보다 살아서 돌아가고 싶었다. 고산 증세가 오면 정말 머리가 아프고 해서 죽는 거 아닌가 싶었다. 물론 의사도 같이 가시긴 했지만 그게 너무 두려웠다"며 "그냥 버텼다. '살아만 돌아가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글의 법칙'은 출연자들의 극한 생존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전혜빈은 "추위 보다 가장 두려운 건 남극이 녹고 있었던 것을 실제로 볼 때였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다"며 "이렇게 추운데 무슨 지구 온난화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극이 녹고 있는 걸 보니까 이 현실을 빨리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남극까지 지난 7년간 '정글의 법칙'을 이끌어온 김병만은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긴다. 남극을 갔으니, 북극점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남극에는 봉이 꽂혀 있는데 북극은 그게 없다. GPS로 찾아 가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글의 법칙-남극'은 13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전화 062/224-5900 팩스 062/222-5548

트와이스, '왓 이즈 러브?' 공개 4일째에도 음원차트 1위

트와이스(TWICE)의 미니 5집 타이틀곡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가 공개 4일째에도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며 굳건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트와이스가 9일 오후 6시 발표한 새 앨범 '왓 이즈 러브?'의 동명 타이틀곡은 12일 오전 10시 기준 멜론,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벅스, 소리바다 등 5개 실시간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박진영 X 트와이스' 조합이 다시 한 번 역대급 인기몰이중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JYP엔터테인먼트 수장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왓 이즈 러브?'는 사랑을 책으로 배운, 혹은 영화나 드라마로 배운 소녀들의 호기심과 상상을 다룬 댄스곡으로 통통 튀는 밝은 멜로디에 업템포 댄스비트와 트랩 장르를 넘나드는 리듬이 더해져 한 곡 안에서 다양한 음악적 변화들을 선보인다.

박진영과 트와이스는 지난해 5월 '시그널(SIGNAL)' 이후 약 1년 만에 '왓 이즈 러브?'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연속 히트 행진을 하고 있다. '시그널'은 공개 후 음원차트 정상 석권은 물론 2017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노래상' 및 각종 음악 방송 12관왕을 차지했다. '시그널'이 포함된 미니 4집 앨범 역시 3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박진영 X 트와이스' 조합의 화려한 첫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왓 이즈 러브?' 첫 방송 무대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트와이스는 12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각종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격해 아홉 멤버들의 달콤한 매력을 듬뿍 담은 '왓 이즈 러브?'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트와이스의 '왓 이즈 러브?' 뮤직비디오도 12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유튜브 조회수 2690만뷰를 돌파하며 가파른 조회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MV는 지난 10일 오후 6시 1257만뷰를 넘어서며 '공개 24시간 만에 최다 조회수'라는 자체 기록을 달성한 데 이어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11일 오전 5시 32분께 유튜브서 2000만 조회수를 넘어서 '공개 35시간 30여분 만에 걸그룹 사상 최단 기간 2000만뷰 돌파'라는 새기록을 수립해 눈길을 끌었다.

'히든싱어5' JTBC 음악 예능 원조가 온다..대국민 투표로 포문

JTBC 음악 예능 돌풍의 원조 '히든싱어'가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히든싱어 시즌5'는 지난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선희부터 아이유까지 총 49명의 원조 가수로 이뤄진 역대급 라인업을 자랑하는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오픈하며 2년 만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히든싱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와 그 가수의 목소리부터 창법까지 소화 가능한 '모창 도전자'의 노래 대결이 펼쳐지는 음악 프로그램. 2012년 '스타와 팬이 함께 만드는 기적의 무대'를 콘셉트로 첫 선을 보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히든싱어'는 '듣는 음악'의 시초로 거듭나며 시즌4까지 방영, JTBC의 최다 시즌을 이끈 대표 예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히든싱어'가 2년 만에 다섯 번째 시즌으로 컴백할 것을 알려 기다리던 시청자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히든싱어 시즌5'(기획 조승욱, 연출 김희정, 이하 히든싱어5)는 지난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즌1부터 4까지 감명 깊었던 무대에 투표하는 대국민 이벤트로 본격적인 컴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히든싱어'의 위엄은 쟁쟁한 후보 라인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즌1 첫 출연자 박정현을 시작으로 이선희, 이승환, 휘성, 보아, 태연, 아이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가수 49인의 무대는 '히든싱어'의 가치를 입증하는 동시에 투표에 참여하는 네티즌의 고민을 안기고 있다.

오늘의 운세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음력 2월 28일)

▶쥐띠 모처럼 가족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머리를 식혀보는 것은 어떨까. 크고 작은 많은 일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라. ㄱ, ㅅ, ㅈ 성씨 미혼자는 핑크빛 사랑을 속삭이겠다. 자존심 그만 내세우고 상대와 약속을 잡으라.

▶소띠 별을 보려면 밤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기다림도 좋은 것이다. 급하게 서두르다 모든 것 놓칠 수 있다. 소, 토끼, 양띠 말은 천금보다 귀하니 그의 의견을 들으라. 애정은 한 번정도 더 신경 써야 할 듯.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

▶호랑이띠 하나도 챙기지 못하면서 남의 것까지 넘보지 말라. 당신 말을 믿고 따르는 아랫사람이 운다. ㅁ, ㅇ, ㅊ 성씨 오늘 하루만이라도 허황한 꿈에서 벗어나 부모, 형제 품에서 생애를 설계하는 것이 어떨지. 가는 길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토끼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 있지 않은가. 감정 나는 대로 말하다 가족 모임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분위기 파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수양을 쌓는 것이 더 필요하다. 과식하지 말라. 식중독을 주의할 것.

▶용띠 유혹은 마음에 오는 법이다. 과감히 물리치라. 상대 말에 휩쓸리면 마음만 들뜨다 뒷북 맞는 격이다. 멀리할 자 멀리하고, 잡아야 할 자 꼭 잡아야 길운이 열리리라. 1, 2, 3월생 파란색 옷으로 자신을 나타내라.

▶뱀띠 눈이 녹으면 봄임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내가 왜 손해만 봐야 하나. ㄱ, ㅅ, ㅇ 성씨는 위만 보지 말라. 분수를 알고, 투기적인 것에는 신경을 끊으라. 7, 10, 12월생 영업소, 분식, 노래방 업자 콧노래가 흥겹다.

▶말띠 재물을 탐내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처신하라. 노력한 보람이 결실로 나타나는 길운임을 알라. ㅂ, ㅅ, ㅇ, ㅊ 성씨 애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연상은 피하라. 상대를 끌어주고, 받쳐주는 여유 있는 사랑을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양띠 겨울철에 눈과 얼음 그리고 차디찬 바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찾아보면 양지바른 곳도 있다. 작은 것부터 새로 시작하면 큰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라. 4, 8, 10월생 장시간 운전해야 한다면 휴식하면서 하라. 무리하면 건강에 이상이 온다.

▶원숭이띠 젊음도 한때, 사랑도 한때라지만 분별없이 저지른 행동으로 우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라. ㅇ, ㅈ, ㅊ 성씨는 내 힘으로 힘들다 생각하기 전에 끝까지 추진하는 힘을 길러보라.

▶닭띠 모처럼 친구와 함께하라. 독불장군인 양 혼자 시간을 보내기보다 친구들과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은 어떨지. 상대가 잘해주길 바라기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좋다. 서북간에 길운이 있다.

▶개띠 오랜만에 가족과 한자리에 모일 수 있으나 신앙으로 인해 말다툼할 수 있다. 신앙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더 큰 것을 위해 하찮은 것을 덮어둘 수 있는 자가 돼라. ㄱ, ㅂ, ㅈ 성씨는 특히 넘겨 듣지 않아야 불상사를 막는다.

▶돼지띠 다른 사람 처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강하지만, 고집이 세다 보니 일 잘 해놓고 뺨 맞는 격이다. 2, 3, 5, 9월생 남을 돕는 것은 좋으나 그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길 수 있다. 가정과 자식에 좀 더 신경 쓰라.